

○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11.00원 상승한 1,220.20원에 마감
-------------	-------------------------------

24일 환율은 전일대비 11.00원 상승한 1,220.2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6.30원 상승한 1,215.50원에 개장했다. NDF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급등을 소폭 되돌리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날 현물환 시장에서 환율은 주말 간 국내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급증하면서 갭업 출발했다. 장 초반부터 빠르게 상승하며 장중 내내 1,210원 후반대에서 등락하였다. 네고물량과 당국 경계로 꾸준히 상단이 제한되었으나, 국내 증시 급락과 달러 강세 등 영향으로 상승세가 계속되며 전일대비 11.00원 상승한 1,220.20원에 마감하였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원-엔 재정환율은 1,093.36원이었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215.50	1220.30	1215.00	1220.20	1217.7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82.50	1103.31	1082.50	1100.66

금일 전망	글로벌 위험선호심리 훼손에 1,220원대 초반 등락 예상
--------------	---------------------------------

금일 달러원 환율은 1,220원대 초반 등락이 예상된다.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4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220.20원) 대비 0.90원 내린 1,218.85원에 최종호가 됐다.

코로나19 확산이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등에서 빠르게 증가되면서 금융시장의 패닉으로 위험자산 투매, 안전자산 매수로 이어지고 있다. 금일 오전 중 발표되는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경우 1,230원대 안착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한편, 한은이 발표한 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월 대비 7.3포인트 하락한 96.9를 기록했다. 메르스 사태 당시의 하락폭과 같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메르스 사태당시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것을 고려하면 오는 27일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환율 상승압력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외환 당국의 미세조정과 수급상 네고 물량 우위인 점은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216.00 ~ 1224.00 원
--------------------------	---------------------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7815.75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90원 ↓ ■ 美 다우지수 : 27960.8, -1031.61p(-3.56%)
--------------	---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85.73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475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